

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결	서 무	간 사	위원장
재			

등록금심의위원회 7차 회의		일 시	2019.11.28.(목) 10:00
		장 소	본부관 311호
참석위원	이호선(위원장), 이동기, 문창로, 이준배, 고성우, 정성훈, 김태호 (이상 7명)		
업무지원	간사 : 조 준 / 서무 : 안정민		
불참위원	없음		
의 제	2019학년도 추가경정예산(안) 심사 및 의결		

◎ 회의내용

1. 개회선언

■ 위원장

- 재적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2019학년도 7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함.
- 오늘 회의는 2019학년도 추가경정예산(안) 심사 및 의결을 안건으로 함.
- 배포한 2019학년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(안) 자료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기로 함.

2. 2019학년도 추가경정예산(안) 심사

■ 기획처장

- 2019학년도 추가경정예산(안)의 규모, 적립금 현황 등 주요 편성 내용과 수입 및 지출의 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함.

■ 위원장

- 2019학년도 추가경정예산(안)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법인 법정부담전입금 총액이 본예산 대비 감소한 이유에 대해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전체 교직원 인원변동에 따라 법정부담금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, 사학연금부담금에 대해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100% 부담하였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본예산 대비 학부수업료 수입이 증가하였음에도 학부 실험실습비 총액은 감소하였으며, 학생지원비도 학부학생활동지원, 학생행사지원, 생활관운영 등에서는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(안)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 그 이유에 대해 질의함.

■ 간사

- 각 단과대학은 자율 예산을 편성하므로 필요에 따라서 실험실습비 대신 기계기구 매입비 등 다른 계정으로 지출하기도 하며, 국고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실험실습비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지출 계획을 변경하기도 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추가경정예산(안) 계정별 금액의 증감은 각 부서에서 제출한 본예산 대비 지출 계획의 변경 내용을 모두 취합한 결과이며, 실험실습비 계정의 증감을 본부에서 직접 통제하지는 못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대학원 실험실습비가 줄어들면 연구에 지장은 없는 것인지 질의함.

■ 간사

- 대학원도 수입 총액의 40% 범위 내에서 자율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, 실험실습비 계정이 아니라도 기계기구매입 등 타 계정에 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올해 추가경정예산(안)을 전년도 결산과 비교하여 볼 수 있는지, 추가경정예산(안)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현재까지의 지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중간결산 자료가 있는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결산자료는 대학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되어 있음. 본부는 각 부서의 지출 계획을 취합하여 계정별 총액 관점에서 추가경정예산(안)을 편성하는 것이며, 개별 부서와 학부(과)의 지출 내용은 고유의 영역이므로 본부가 일일이 판단하지 않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2018학년도 예산 규모 대비 2019학년도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늘어났음에도 학부 장학금 총액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 그 이유에 대해 질의함.
- 또한 생활비장학금의 증액분만큼 학부 장학금 총액이 증가하지는 않았으므로 다른 종류의 장학금액을 줄인 것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실제 학부 장학금 지출액은 교내장학금 총액 내에서 추가경정예산(안)보다 증가할 수 있으며, 일정 기준에 부합하여야 지급되는 장학금의 지출 규모에 따라 최종 장학금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교무처에 확인해본 결과, 강사법 시행으로 강사 수를 줄이지는 않고 직종을 전환하였다고 함. 그러나 추가경정예산(안)을 보면, 시간강의료 예산은 크게 감소한 반면 교원급여 예산은 그만큼 증가하지는 않음. 그 이유에 대해 질의함.

■ 간 사

- 교원급여에는 비전임교원 급여도 포함되어 있는데, 비전임교원의 경우 의원면직이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그 숫자에 따라 급여 총액은 증감될 수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노임 계정에서 시설 보수 및 환경미화 예산이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와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된 환경미화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이나 복지 증진을 위해 학교에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고용형태가 용역업체를 통한 파견이므로 근무조건 등은 업체와의 계약에 따르고 있음. 용역업체에서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여 차기 계약 시 반영하는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올해 초 등심위 회의에서 전기수도료, 난방비 등의 절약캠페인을 통해 절약한 금액으로 학생을 위한 복지기금을 조성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, 본격적으로 시행은 못하였음. 차기 총학생회에서 이를 진행한다면, 학교에서도 협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림.
- 예술관, 조형관 지하의 공기 질이 안 좋아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실습하고 있음. 집진 시설 설치 등 관련 예산을 내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절약캠페인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며, 집진 시설 설치에 교내 전체 공기청정기 구입 비용의 일부를 반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소모품비 예산이 증가하였는데 통상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소모품비는 증액을 억제하는 계정이며, 올해는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예산, 결산 심사 시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반영하고 있는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현재 설계 단계로 진행 중에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2020학년도 예산 편성은 언제부터 진행되는 것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12월 초에 교내에 2020학년도 본예산(안) 편성을 요청할 계획임.

3. 2019학년도 추가경정예산(안) 의결

- 2019학년도 추가경정예산(안)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며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로 의결함.

4. 폐회선언

- 이상 2019학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사·의결을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함. 끝.

2019. 11. 28.

국민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

위원장

이 호 선



위 원

문 창 로

위 원

이 능 기



위 원

이 준 배

위 원

위 원

정 성 훈

위 원

김 태 호